



고양시 안심행정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양시 역시 좀 더 체계화되고 다각화된 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범국민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질을 높여 코로나19 사태에 완벽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고양시의 다양한 코로나19 대처 사례들을 살펴보자.

글·사진 편집부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고양시 안심숙소



민원실 양방향 마이크

1.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그동안 출입자 관리는 QR코드와 수기대장으로 관리해왔다.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어렵고 2G 휴대전화기는 접속 불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수기대장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편리하지만,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대장을 접촉할 우려가 있고 기재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문제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상점이 출입 시 출입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전화번호를 남기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기록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된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곳과 일산서문 상점가 1곳 등 총 4곳을 시작으로 대규모 점포, 중소형 마트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 안심숙소, 키텍스 카라반 활용

최근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가족 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지만, 자택 규모·구조·주거환경·생활습관 등의 문제로 안전한 자가격리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 가족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택 구조나 구성원 수

등으로 가옥 내 실제 독립된 격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심숙소’를 마련했다. 키텍스 캠핑장 내 카라반 16실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로 인근 야영장 부지에 20실을 확보할 방침이며 가족 확진자가 더 늘어날 시 소유 경로당 40개소를 활용할 예정이다.

3. 민원실 양방향 마이크·투명마스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어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입모양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투명마스크를 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립뷰(Lip-View)’ 마스크인 이 투명마스크는 마스크 가운데가 투명하게 처리돼 입모양과 표정이 훤히 보이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민원실 방문 시 담당 직원이 착용한 후 응대하기 위해 민원실에 비치한 물품이다.



민원실 투명마스크



일산동구보건소 원도우스루 선별진료소

4. 선별진료소 사전 예약 검사

고양시민 가운데 무증상 검사 희망자는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사전 예약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매주 선착순 50명씩 검사한다.

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월요일과 수요일만 신청을 받고 월요일 예약자는 수요일, 수요일 예약자는 토요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대상자 선정은 요일당 25명씩으로 제한하고, 고양시에 주소를 둔 코로나19 무증상자와 지역 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종사자여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를 방문해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검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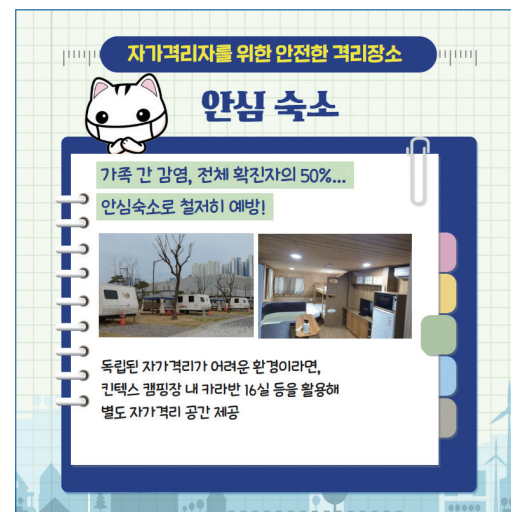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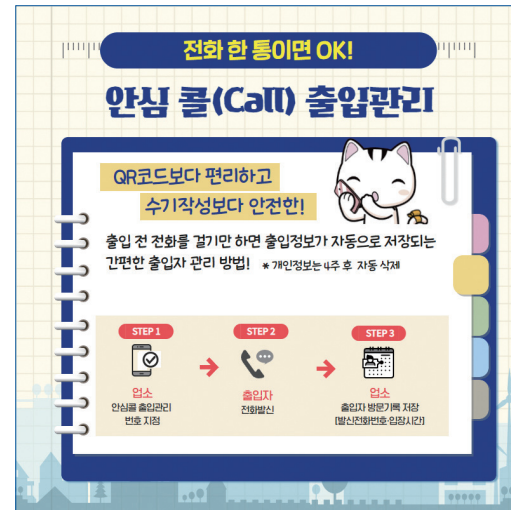
5. 코로나19 고양 안심넷(NET) 운영

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코로나19 고양 안심넷(NET)'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양 안심넷(NET)은 1,553개 의약업소의 협조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고양시 관내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검사의뢰서를 교부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6.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12월 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로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 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시설이다.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준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 안심서비스

함께 지켜요!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5가지 핵심수칙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① 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 ②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삼가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 및 식사 등의 접촉을 자제합니다.
- ③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④ 병원 또는 약국 방문, 생필품 구입 등 어쩔 수 없는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씁니다.

5가지 핵심수칙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 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 ②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 ④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5가지 핵심수칙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립니다.

- ①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③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ncov.mohw.go.kr를 참고해주세요.

5가지 핵심수칙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합니다.
-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③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합니다.
- ④ 소독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5가지 핵심수칙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 ①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만듭니다.
- ②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 ③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 ④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